

전주세계소리축제 결산

24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폐막했다. 사진은 이날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폐막 무대 현장.



프로그램 차별화 '일단 성공'

개막공연, 미디어 매체 결합 시도
"공연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
일부 관객객 우려 섞인 목소리도
판소리 다섯바탕 공연 진행중
작가 작품 설명 곁들여지지 않아
지역 예술자원 활용 취지 무색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다섯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막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직위 측은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다양한 문화 공간 개발 등의 측면에서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올해 조직위는 전통소리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대중과의 호흡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전면배치했다.

개막공연의 경우, 각각 다른 방편의 예술가들 고루 출연시켜 자기만의 어법으로 소리를 풀어내게 했다. 판소리와 가요, 판소리와 무용, 판소리와 월드뮤직, 판소리와 팝 그리고 한복과 양장 차림을 한 예술가들이 꾸미는 무대는 이질적인 요소가 묘하게 어우러지며 다양한 음악해석의 여지와 실마리를 남겼다.

또한 개막공연은 판소리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미디어 매체와 결합을 시도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근 소리축제의 변화를 생방송 개막공연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소리의 현대적 해석과 실험을 대중에게 널리 보여주기 위한 기획의도"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KBS TV를 통해 공연실황이 생

중계 된 개막공연에 대해 일부 관객들은 "공연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본디 공연은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관객들과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느끼는 공기의 호흡을 공감하는 자리인데, 생방송 중계는 이런 본질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축제의 판소리다섯바탕을 비롯해 산조의 밤 등 대표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계층과 취향을 고려한 편성으로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공연 프로그램의 시간 및 내용의 특성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일부관객들이 공연 도중에 수시로 드나들며 공연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인터미션을 고려한 공연 진행 및 홍보 활동 강화로 공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소리다섯바탕'은 지난해 모던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며, 전통판소리의 발전을 향한 기대가 쏠렸다. 올해는 지역 예술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컬러 판소리 공연장'을 표방했다. 하지만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아 작가의 작품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다반사였다. 이는 지역의 예술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공연의 기획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간이 음악장소로 연지출 앞에 마련된 '더블빌'은 '더블스테이지' 무대와 근접해 있어 공연장안으로 소리가 새어들고, 내부 온도가 높고 습한 탓에 공연 관람의 불편함을 안겼다. 이 자리에 일부 '소리천사'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 '큰 호응'
모악당 앞 더블스테이지 등
새로운 형태 공간들 개발
체류형 축제로 손색 없어
명인홀 외벽 대형 LED 설치로
관객 서비스 측면서 '긍정적'

들은 빈 관객석을 채우기 위해 동원했다. 관객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파란 공식 유니폼에 사복을 걸쳐 입은 이들은 "해외에서 연주자들을 초청해 왔는데, 관객들이 없으면 민망하고 분위기가 다운될 세라 그러한 방안을 동원했다"며 "일부 공연에도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축제는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모악당 앞 더블스테이지, 분수대 수변무대 등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을 개발해 체류형 축제로 손색이 없었다.

모악당 앞 더블스테이지는 속도감 있게 공연이 교체됨으로써 관객들의 이탈을 최소화시켰으며, 서커스나 연극적 요소 등이 결합된 퍼포먼스형 공연의 비중을 높여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명인홀 외벽 대형 LED 설치로 공연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다양하게 송출함으로써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소리전당 내 공간 표지판, 일정보, 큐브형 안내판, 야간 조명 등 축제 안내와 경관의 매력을 두루 살린 공간운영 등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정해은 기자

신석정문학상 시상식 개최

신석정문학상에 공광규
촛불문학상에 심옥남 시인



제4회 신석정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윤석정 신석정기념사업회 이사장, 정군수 석정문학관장, 소재호 석정문학상 운영위원장,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이운룡 전북북문학회, 전일환 수필가, 조미애 전북시인협회장 등 관계자 및 문인들과 신석정 선생의 자녀들, 김종규 부안군수, 오세웅 부안군의장, 이연상 부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제4회 신석정문학상'(상금 3000만 원)을 받은 공광규 시인은 "상을 받아 시 쓰기에 대한 집사의 인도감과 문단과 사회에 대한 부채감을 동시에 얻었다"며 "일제 때 참지개명을 거부하고 해방 이후에는 새 나라를 희망하는 시를 썼으며, 전쟁 이후에는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석정의 시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석정 촛불문학상'을 받은 심옥남 시인은

"이 상은 제게 핀 향기롭고 영광스런 꽃"이라며 "겸허하게 이 꽃을 가슴에 안고 시의 삶을 더 향기롭고 고귀하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부안에서는 전국 신석정 시낭송대회와 공광규 시인의 문학강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열렸다. 24일 전주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린 석정문학제에서는 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의 석정시극공연과 신달자 시인의 문학강연이 열렸다.

신석정문학상 시상식·석정문학제는 신석정기념사업회·석정문학관·석정문학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전주시·부안군·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 등이 후원했다. /정해은 기자

양성평등 콘텐츠 전국 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에 '물들다' 차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2017 양성평등 콘텐츠 전국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의식 증진과 문화 확산을 보다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139개 단체 및 개인이 참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상)은 전주대학교 김운정 팀이 출품한 '물들다(UCC분야)'가 차지했다.

작품은 다양한 미디어 속에 만연해있는 성상품화와 외무지상주의 등 성차별 사례를 제시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우고 있다.

이 외에도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UCC분야)'와 '진정한 양성평등(UCC분야)'가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작은 유튜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SNS,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미디어 플랫폼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아리울스토리3 '해적', 26일 익산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3 '해적'을 26일 오후 7시30분 익산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는 지난 7월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MOU 체결에 따른 실질적 상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익산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해적 공연을 무료로 펼치며, 익산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5일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기획공연으로 익산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전북 예술회관 상설공연장에서 갖는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서 이뤄지는 광역-기초 문화재

단 간의 교류인 만큼 문화 향유에서 소외된 지역민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북도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